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4. 23. / (총 8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김 영 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
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	과 장 담 당 자	이 중 규 조 성 원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
중앙사고수습본부 대 국민소통팀	팀 장 담 당 자	이 경 진 김 문 희	전 화	044-202-2023 044-202-2031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▲의료인 응원 캠페인(#덕분에챌린지) 진행 상황 -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(보건복지부 장관)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▲의료인 응원캠페인(#덕분에챌린지)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,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긴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활 속 방역 체계 확립과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.
- 또한 지난 4월 16일부터 SNS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응원캠페인 “덕분에 캠페인”에 일반 국민과 연예인, 시도단체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.

1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안 중 하나로,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간 균형과 환자 추이에 따른 탄력적 병상 운영을 위해 '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'을 논의하였다.
- 이에 따라 급작스런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확보된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,500여 병상 중 일부를 시·도 단위의 최소 병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·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.
- 병상 감축은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, 지역별로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 등을 수립한 후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.
 - 1차 감축은 현재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, 682개 병상을 대상으로 4월 23일 이루어지며, 2차 감축은 감염병에 지속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은 병원(예: 요양병원, 산재병원)과 가동률이 5% 이하인 11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.
 - 5월 초에는 대구·경북,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·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, 대구·경북 및 수도권 5개 시·도는 확진 환자 추세 등을 살펴본 후 추가 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이러한 4차례에 걸친 감축이 완료될 경우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 아래에서는 감염병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,500~2,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이다.
-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,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임시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,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을 수립해,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.

- 특히, 확진 환자 추이를 토대로 위기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해,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하고, 상황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병상 수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.

< 단계별 구분(안) >

구분	1 단계	2 단계	3 단계	4 단계
상황	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	일일 확진 환자 50명 이상 발생	일일 확진 환자 100명 이상 발생	일일 확진 환자 1,000명 이상

2 의료인 응원캠페인(#덕분에챌린지) 진행 상황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6일(목)부터 추진 중인 의료진 응원 캠페인인 ‘덕분에 캠페인’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다.
- 현재 온라인 기반의 국민참여 릴레이 캠페인인 ‘덕분에 챌린지’가 8일째 진행 중이다.
 - * 개인 인스타그램에 ‘존경’과 ‘자부심’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 또는 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(#덕분에캠페인, #덕분에챌린지, #의료진덕분에)와 함께 올리고, 본인에 이어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국민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
- 4월 22일 12시 기준으로 2,643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고 다수의 유명인사*와 주요 기관 및 기관장** 등도 참여하여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.
 - * 배우 박해진·정보석, 가수 보아·김종서·러블리즈·에이핑크, 캐리TV 등
 - ** 대한민국정부, 강원도, 충청북도, 광주광역시, 인천광역시, 인천광역시 서구, 경기도 용인시, 민갑룡 경찰청장, 박남춘 인천시장, 이춘희 세종시장, 임택 광주 동구청장,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
- 여러 언론에서도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‘덕분에 캠페인’을 비중 있게 보도하거나 호평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국민 관심을 촉구하였다.



-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‘덕분에 캠페인’의 하나로 제작한 ‘덕분에 배지’*를 브리핑 등 정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고 의료진과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추첨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.

* ‘존경’과 ‘자부심’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한 ‘덕분에 캠페인’ 상징물

< ‘덕분에 배지’ 세트 (배지 2종, 메시지 카드로 구성) >



- 5월 중순부터는 국민 누구나 ‘덕분에 배지’를 자유롭게 제작, 활용할 수 있도록 배지 디자인 사용 규정(가이드라인) 또한 제공한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‘덕분에 캠페인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.

- < 붙임 > 1.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 방법 카드뉴스
2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3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8. 마스크 착용법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 방법 카드뉴스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

건강하게 극복하세요!

2020.3.6. 1/6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

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,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
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

불안과 공포가 커져요

잠을 잘 못 자겠어요

의심이 많아져
사람들을 경계해요

기운이 없고
무기력해져요

2020.3.6. 2/6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심리상담 지원 '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'

확진자와 그 가족,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.
또한,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
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.

감염 확진자 및 가족, 격리자 등

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, 국립정신의료기관,
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'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'에서는
유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

2020.3.6. 3/6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감염병 스트레스 '정신건강 대처법'

-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**
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
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.
-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**
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
정상적인 반응이지만, 과도한 경우에는
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힘든 감정 털어놓기**
가족, 친구, 동료와 소통하며
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.
-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**
충분한 수면, 운동, 건강한 식사 등으로
정신건강을 지켜요.

2020.3.6. 4/6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감염병 스트레스 '정신건강 대처법'

-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**
어린이가 수중에 맞추어
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
-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
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**
격리되어 있는 사람들, 혹은
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
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.
-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**
감염병 최전선에서
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
응원을 보내주세요.

2020.3.6. 5/6

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

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

위기상담전화

확진자 및 가족
02-2204-0001~2
(국가트라우마센터)
055-520-2777
(영남권트라우마센터)

격리자 및 일반인
1577-0199
(정신건강복지센터)

누리집

국가트라우마센터 | <https://nct.go.kr>
질병관리본부 | <http://www.cdc.go.kr>

2020.3.6. 6/6

붙임2

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3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